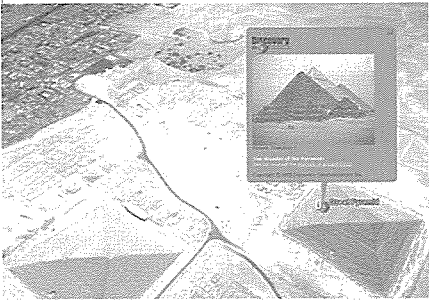


구글-MS 온라인 위성사진 시장서 격돌



구글은 일부 지역 해상도를 높이고 과거 사진까지 함께 제공하는 등 구글 어스의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 새로운 구글 어스는 네덜란드와 일본의 경우 거리의 행인 모습까지 구분할 수 있는 해상도 15cm의 초정밀 사진까지 제공할 예정이어서 보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구글 어스는 또한 사용자가 직접 지도상의 특정 빌딩을 3D 이미지로 전환해서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체가 본사 건물의 입체 이미지를 위성사진에 끼워 넣고 대외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글 어스는 이 밖에도 과거와 현재의 위성사진을 비교해 지난 30년간의 지형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여행' 서비스를 일반 고객들에게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글 측은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 위성사진을 클릭하면 상세한 배경설명이 뜨는 등 콘텐츠 개선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MS도 버추얼 어스에 새로운 기능을 강화하면서 위성사진 시장에서 맞불을 놓고 있다.

MS는 최근 새의 시각으로 도심지역을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 '버즈아이뷰' 기능을 버추얼 어스에 추가했다. 빈센트 타오 버추얼 어스 사업담당은 "버즈아이뷰는 수직으로 내려보는 위성사진보다 지역상황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고 말했다.

노키아, 중국에서 25억달러 납품계약

세계 최대 휴대폰업체 노키아가 중국통신시장에서 25억달러 이상의 휴대폰 단말기, 네트워크 장비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EET타임스가 9월 12일 보도했다.



노키아는 이번 계약에 따라 올해안에 중국 최대의 이동업체 차이나 모바일에 GSM/GPRS 네트워크장비 7억3500만달러어치, 휴대폰 유통업체 PTAC에는 19억달러 규모의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게 된다. 노키아의 올리 페카 칼라스부오 CEO는 중국시장에서 에릭슨, 화웨이 등 경쟁사를 제치고 대규모 납품계약을 성사 시킴에 따라 현재 6800명에 달하는 중국 내 직원수를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키아는 현재 중국 휴대폰 내수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내 휴대폰 제조와 R&D, 유통망 확보를 위해 그동안 42억달러를 투자했다.

BT, 중국 ZTE와 3G폰 공동개발

브리티시텔레콤(BT)이 중국 통신·네트워크 사업자 ZTE와 3세대(G)휴대폰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9월 13일 셀룰러뉴스에 따르면 BT는 ZTE와 개발하는 휴대폰은 디지털오디오 방송(DAB)과 3G 스트리밍 방식을 모두 지원할 것이며 내년 영국에서 출시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휴대폰 디자인·제조 등에 정확하게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BT는 3G 휴대폰 개발로 휴대폰으로 TV·DAB 디지털라디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3G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엠마 로이드 BT 모비오 매니징디렉터는 "DAB를 지원하는 3G 휴대폰 출시로 3G 이동통신 시장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카텔, 노텔 네트워크의 3G망 인수한다

프랑스의 통신장비업체인 알카텔이 노텔 네트워크의 3세대(3G) 무선통신사업부를 인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월 1일 알카텔이 노텔네트워크의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 라디오 액세스 부문 및 관련 자산을 3억2000만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알카텔은 노텔의 네트워크를 인수해 자사의 UMTS 자산과 통합,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높ی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알카텔은 루슨트테크놀지스에 이어 노텔의 UMTS 자산까지 인수하며 이 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20%로 에릭슨과 노키아에 이어 3위로 부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알카텔은 보다폰(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영국)·오렌지(프랑스·벨기에·슬로바키아·폴란드) 등 노텔의 14개 고객사를 자사 고객으로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인수는 알카텔의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과 중국 내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알카텔은 이미 한국과 중국에서 GSM과 EDGE 기술을 기반으로 한 2G 및 2.5G 망 구축용 장비로 높은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정소영기자

HP, 마크 허드 체제 급부상

HP는 9월 12일 패트리샤 던 회장이 내년 1월18일 이사회에서 사임할 예정이며 이



후 허드 CEO가 회장직을 겸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칼리 피오리나 전 회장 해임 직후인 지난해 2월 회장에 선임된 그는 회사 기밀 정보를 유출한 이사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사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HP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사회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계속 유출해 온 이사를 색출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 이사진과 9명의 기자의 통화기록을 입수한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 정보를 빼내는 프리텍스팅(pretexting)이란 불법적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HP는 자사 기밀정보 유출 조사가 지난해 초 시작돼 올 초 더욱 강화됐지만 지난해 4월 부임한 허드 CEO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드 CEO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될 전망이다.

HP는 허드 CEO 부임 후 강도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한 비용절감과 수익개선 노력을 통해 지난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7배 이상 증가한 순익을 달성했다. 지난 7월에는 SW업체인 머큐리 인터랙티브를 45억달러에 인수키로 합의,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SW 사업을 보강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허드 CEO는 최근 성명에서 “나는 부적절한 조사 방법이 다시는 채택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바-메모리테크, DVD와 HD DVD 호환 가능 3겹 디스크 개발

도시바와 메모리테크는 DVD와 고선명(HD) DVD 저장 총 3개를 합쳐놓은 3겹

디스크를 개발, 내년초 상용화한다고 PC월드가 9월 11일 보도했다.

DVD 버전과 HD DVD 버전을 동시에 저장한 이 디스크의 등장으로 소비자는 HD DVD 플레이어를 새로 사도 같은 영화를 또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다. 마이크 로소프트(MS)·포니캐년 등 HD DVD 진영은 3겹 디스크가 대용량화를 가능케 해 수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바는 HD DVD 총 1개와 DVD 총 2개를 결합할 경우 기존 DVD 콘텐츠와 MPEG4 AVC 압축 기술을 사용한 HD DVD 콘텐츠를 각각 4시간씩 저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DVD와 HD DVD 중 어떤 층을 두장으로 할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카이 가즈오 MS 부사장은 “새 포맷이 콘텐츠 개발자의 지원을 받아 HD DVD 확산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야기 히데키 포니캐년 총괄 매니저도 “HD DVD 시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바와 메모리테크는 2004년 12월에도 DVD·HD DVD 플레이어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2겹짜리 디스크를 개발했다. 일본 포니캐년 등은 이에 맞춘 영화 타이틀도 출시했다.

중국, 올해 휴대폰 4억개 생산할 전망

중국은 올해 총 4억대의 휴대폰을 생산할 전망이다. 중국의 한 여성이 베이징 거리를 지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이 올해 전세계 휴대폰 생산량의 절반인 4억대의 휴대폰을 생산할 전망이다.

5일 신화통신은 신식산업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상반기에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한 2억1000만대의 휴대폰을 생산한데 이어 연말까지 이같은 생산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왕빙케 신식산업부 관리의 “중국 휴대폰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외국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중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수출의 초점을 하이엔드 시장에서 미들·로우엔드 시장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 휴대폰 가입자는 상반기에 3000만명이 증가해 현재 4억20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신식산업부는 중국의 상반기 휴대폰 수출액은 133억달러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미국 반도체 업계, 이젠 디자인까지 아웃소싱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제조시설에 이어 디자인까지 아웃소싱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반도체 디자인 인력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제로 한 기술 콘퍼런스가 등장해 이같은 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산시설을 대만 파운드리 업체로 넘겨 제조 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IC 디자인마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반도체 인프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더 나아가 반도체 디자인 아웃소싱 확대가 미국 반도체 업계의 ‘디자인없는’ 비즈니스 모델 증가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EET타임스는 전했다